걷기좋은 도시…'워커블시티 무안' 추진 잰걸음

14개 신규과제…하반기 '무안형 워커블로드' 조성 목표

작년 실천과제 이행률 82.1%…약 50㎞ 산책로 조성

무안군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워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월 남악 자전거 공원 일원에서 '제1회 무안 산책로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관내 곳곳에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워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워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는 무안군 곳곳에 군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달 김산 군수 주재하에 워커블시티 무안 2024년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14개 신규과제를 비롯해 총 29개의 실천과제가 발굴됐다.

주요 실천과제는 ▲워커블시티 신도시 특색있는 산책공간 조성사업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읍면별 걷기 동아리 육성 ▲회산백련지 황토맨발길 조성사업 ▲물맞이 치유의 숲 길 조성사업 ▲치유마을 맨발걷기 산책길 조성 ▲무안군 워커블시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공원·하천 등 산책로 친환경 포충기 설치 ▲스마트 그늘막 설치 ▲무안군 청년플랫폼 걷기 나들이 프로그램 ▲보건의 날 연계 생활 속 걷기 행사 개최 등이다.

또 지난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28개 실천 과제 중 23개를 이행(정상추진), 82.1%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체계적인 일상 속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무안군 전역에 특화 거리 조성이 가능한 공간을 조사하는 '무안군 워커블시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용역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무안군 워커블시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무안군 전역을 아우르는 무안형 워커블로드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완료된 주요 과제들은 ▲워커블시티 신도시 특색있는 산책공간 조성 사업 ▲영산강 관광경관 개선 사업 ▲대불선 숲길 조성 사업 ▲농공단지 근로자와 함께 보행문화실천을 위한 산책로 조성 ▲해안관광 둘레길 조성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위생 해충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 ▲시니어 올바르게 걷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민 걷기 지도자 양성 ▲건강증진 동아리 '워킹그룹' 운영 등이다.

또한 해안관광일주도로 노을길, 물맞이 치유의 숲 길, 탄도 해안 탐방데크, 근화베아채 스위트-남악센트레빌 구간 숲속 산책로, 황토맨발 길 등 총 8개소에 50.762㎞ 산책로를 조성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 무안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일상생활 곳곳에 걷기 좋은 환경과 군민 맞춤형 보행 문화를 접목한 '무안형 워커블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오는 4월 남악 중앙공원 일원에서 생활 속 걷기대회 행사와 10월 망운 조금나루와 현경 봉오제 일원에서는 '무안 노을길 걷기 및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함평군, 우량 한우개량 "축산업 경쟁력 높인다"

함평축협·종개협 한우개량 기술·정보 공유 '맞손'

함평군이 우량 한우 개량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27일 "지난 26일 함평축산농협, 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 종개협)와 함께 '함평군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삼자 간 한우 개량에 관한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종축 선발로 경쟁력 있는 우량 종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함평군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지원, 함평축협은 유전체 분석 정보를 활용한 우량 암소 선발과 유전적 개량 극대화를, 종개협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우량 축군 조성과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함평군 씨수소 생산 기반 구축 등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군과 축협, 종개협 3자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군 한우 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은 "함평축협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개량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함평 축산농가들의 한우개량 가속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은 우량암소 개체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2024년을 한우 우수종자 개량의 원년으로 삼고,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함평=김연수 기자

완도 쌀, 177t 러시아·중국 수출길

러시아 사할린주서 인기…30억 규모 수출 협약

완도군은 27일 "지난 25일 완도군농협연합미곡처리장에서 완도 쌀과 농산가공품 러시아·중국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기념식에는 신우철 군수와 조영식 완도군의회 조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김도익 전남농업기술원 과장,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 양희문 다시마전복영어조합법인 대표, 이문걸 중국 바이어인 JHE 글로벌 대표, 캉빈 산동쭤쿤투자유한공사 회장, 농협 관계자,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는 러시아 사할린주에 18t이 수출됐으며, 그동안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에 총 177t이 수출됐다.

특히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인기가 많아 현재까지 11차 수출됐으며 10년간 1천t(30억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농촌진흥청 수출 단지 육성 사업 계획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질이 우수한 '새청무' 품종을 도입해 전복 패화석, 해초 액비 등 완도 바다 자원을 활용해 재배했다.

특히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청정한 자연환경의 장점을 살려 생산돼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복 비파 음료 5만병도 중국 상하이, 윈저우, 칭따오 수출길에 올랐다. 전복 비파 음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수출이다.

완도군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비파, 유자, 전복 등을 활용한 농산가공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쌀과 농산가공품이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 수출된 것은 군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쾌거"라며 "중국 시장은 넓은 만큼 앞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농산물이 확대 수출돼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주말·공휴일 영유아 돌봄 운영

하나돌봄어린이집 시간당 이용 보육료 3천원

해남군은 27일 "3월부터 주말·공휴일 자녀 돌봄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립해남어린이집에서 부모의 긴급한 상황이나 주말근무 등으로 인한 긴급 또는 일시 보육이 필요한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하나금융그룹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한다.

돌봄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용 보육료는 시간당 3천원이다.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신청하되 영유아 1인당 이용 횟수 제한은 없다.

신청방법은 이용 1일전까지 하나돌봄서비스를 통해 사전예약 해야하며, 최대 5주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당일 예약을 할 수는 있으나 당일 보육인원 미달 시 이용 가능하다.

보육 이용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와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시), 필요 시 여벌 옷, 기저귀, 양치 도구 등 개인 지참물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립해남어린이집(061-537-2026) 또는 군청 가족행복과 보육팀(061-530-5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주말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틈새 없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 원거리 도서 미생물 연구 추진

내달부터 5년간 기후변화 따른 미생물 다양성 조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7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국내 원거리 도서 지역의 미생물 다양성 변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원거리 도서인 가거도, 거문도, 흑산도, 추자도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으로 불리며, 최근 주변 해역에서 아열대성 생물의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민감한 미생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군으로, 지난해 신안군 가거도를 조사에서 아열대성 및 미기록 미생물자원을 발견,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향후 5년간 원거리 도서의 수온, 유기물 농도 등 환경 요인과 미생물 다양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해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출현한 미생물을 탐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취항한 친환경 조사선 '섬누림호'를 적극 활용해 가거도, 흑산도, 추자도, 거문도, 어청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며 향후 울릉도, 독도, 백령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창균 도서생물자원연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생태계 변화는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가치 변화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미래 생물자원 확보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규제 대명사' 영암 대불산단, 전봇대 뽑는다

배전·통신 선로 지중화 사업 착수…1차 내년 8월 완료

기업 규제 대명사로 이름이 높았던 대불산단 전봇대가 다시 뽑힌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불산단 입주기업의 오랜 숙원인 배전·통신 선로 지중화 사업에 착수했다.

대형선박 블록 운송환경 개선과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한 이 사업은 기존의 배전·통신 선로를 땅에 묻고, 전신주 111개를 철거한다.

대불산단 지중화는 2000년대 중·후반 '규제 전봇대'의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며 관심을 끌었고, 관련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지자체 재원 부담이 커서 사업 진행은 더뎠고, 2016년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 대형선박 블록 운반 차량이 전봇대 변전소와 충돌하는 사고가 대형 소송으로 이어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번 대불산단 지중화사업 1차는 1구간 대아산업2공장에서 7구간 문성까지 총 2.59㎞를 정비한다. 영암군과 한전, KT 등 6개 통신사업자는 지난해 3월 협약을 체결, 착공에 들어간다.

영암군은 1차 지중화사업을 2025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기간 중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임시포장과 복구공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대불산단 지중화사업 1차는 2022년 영암군의 요청과 한전의 심의로 국비 22억원 지원이 결정됐다.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자체 협력 방식에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방식으로 변경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영암군은 총사업비 112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군, 공공주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착수

기본계획 수립·어업피해영향조사 등 과제 추진

신안군은 27일 "지난 25일 자은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박우량 군수, 신안군의회, 주한 덴마크대사, 해상풍력 분야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10GW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전 인허가 검토 및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주민수용성 조사' 등에 관한 과제를 제시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민과의 상생이 우선이며, 지역발전·일자리 창출 등 합리적인 보상안 마련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겠다"며 "현재 계통 연계 방안에 대해 서해안HVDC 통한 계통 연계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